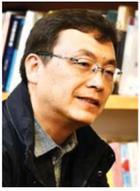


월요논단



김동운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제주 제2공항 건설 문제가 또 해를 넘어가고 있다. 2015년 11월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 성인이 신공항 예정지로 발표된 이후 이 문제는 제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어왔다. 이제는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논쟁을 끝장내야 한다. 지극히 상식적인 차원에서 되짚어보면 풀기 어려운 문제도 아니다. 우선 짚고 넘어갈 점은 과연 제2공항이 “제주 도민의 숙원”(이하 ‘도민숙원’)이냐는 것이다. ‘도민숙원’이란 말은 바로 제2공항 추진사업이 국가에 의해 채택되는 요인, 즉 국책사업의 명분이 되었기 때문에

‘도민숙원’으로 위장된 국책사업

이를 분명히 따져보아야 한다. 숙원(宿願)은 오래 전부터 지니고 있던 소원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제주사람들은 공항을 하나 더 짓자는 소원을 오래 전부터 지니고 있었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제주에서 제2공항의 필요성이 제기된 시기(이것도 일부에 의해서 제기된 것임)는 기껏해야 수년 전에 불과하다. 제2공항이 도민숙원이라는 주장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의해 만들어진 것일 따름이다. (장훈교, ‘제주 제2공항과 시민사회 그리고 해게모니 투쟁’ 참조) 바다 건너 다른 지역으로 편리하게 드나드는 것이야말로 섬사람들이 지니는 당연한 숙원일 수밖에 없다. 설문대화망설화도 그 숙원과 관련되어 형성된 것임은 물론인바, 그런 오래된 소원은 이미 제주국제공항 건설로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제2공항은 제주국제공항 이용객 증가에 따른 불편함을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제시된

것일 뿐이지 결코 숙원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제2공항이 국책사업이 된 명분은 사라진 게 아닌가. 제주사람들이 오래 전부터 간절히 원해왔기 때문에 국가가 특별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명분이었는데, 도민숙원 자체가 조작된 것인 이상 국책사업의 근거는 없어진 것이다. 물론 제2공항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관광, 건설 관련 이익단체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들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다. 경제적으로도 실익이 적고, 환경이 파괴되며, 나아가 군사공항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논리다. 찬반 논의가 분분하고 갈등이 첨예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제2공항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까닭이 없다. 강정해군기지의 경우, 과거 정부는 안보논리를 내세워 기어코 강행

했다. 민군복합항이라는 이름을 내세웠지만, 허울뿐이었다. 미국의 핵잠수함과 핵 항모까지 드나들고 있는 거기에 민간의 영역은 거의 없다. 그렇게 강조했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과연 얼마나 있을까. 제2공항은 군사공항이 아니라는 게 문제제정부의 공식입장이다. 안보문제가 아니면서 도민숙원이 아님도 확실하다. 게다가 반대 여론마저 거센 사업인 만큼 정부가 강행할 이유는 없다. 문제제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이다. 촛불 정권은 무엇인가?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 아닌가? 제2공항을 강행하는 것은 MB정부의 대표정책이었던 4대강사업의 적폐를 고스란히 반복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반대여론을 묵살하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인 4대강사업의 참담한 결과를 정년 모르는가? 결단을 통해 적폐의 고리를 단호히 끊어내야 한다.

열린마당

신고만 하면 5만원을 준다고?



김수환 등부소방서 현장대응과

지금 계산 곳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어디로 대피하셨습니까? 유독가스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어렵게 찾은 비상구가 막혀있다면... 그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극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런 중요한 소방시설인 비상구의 폐쇄·차단(잠금 포함)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시·도별로 비상구 폐쇄에 관한 신고포상제를 조례로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 조례가 개정돼 신고 자격이 ‘만 19세 이상으로서 제주 1개월 이상 거주 주민’으로 제한돼 있던 신고포상 제도는 연령이나 주민등록지에 관계없이 소방시설 폐쇄·훼손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

게 됐다. 신고 대상 업종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시설, 대형마트, 백화점, 소형센터 등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주출입구나 비상구 폐쇄,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건축물 피난 시설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방화문을 훼손·변경하거나 고정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위법사항 발견 시에는 증명자료(사진)를 첨부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서를 우편,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면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한 후 위법사항으로 드러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포상금은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지급 신청을 거쳐 지급되며 1회 5만 원, 동일인이 월간 30만 원, 연간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고포상제는 소방관서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앞으로 다양한 신고 제도를 운영해 불법행위가 원천적으로 근절되는 안전한 제주 특별자치도가 되기를 바란다.

* ‘오피니언’ 편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비축물량 소진 전 파업 해결 노력”

개발공사 파업... 수급 걱정

○...제주도개발공사 파업이 결정되면서 동네마트에서부터 삼다수 수급에 대한 우려를 제기. 동네마트를 운영하는 A씨는 “평소 물류센터에서 받는 삼다수 물량이 있어서 미리 사놓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편의점이야 삼다수 말고도 다른 생수를 판매하지만, 동네마트의 경우는 삼다수만 판매하는 곳이 많다”고 걱정. 제주도개발공사 관계자는 “현재 한달 반 정도의 물량이 비축돼 있다”며 “비축물량이 소진되기 전 파업 문제를 해결토록 노력하겠다”는 입장. 송은범기자

제주시 홈페이지 새단장

○...제주시가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개편하고 2020년 1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 예정. 시는 우선적으로 전체 면을 차지했던 메인 이미지 공간을 축소해 관심이 높은 시정소식, 입찰

공고 등을 상단에 배치하고, 메인 메뉴에 있는 시민참여, 정보공개 등의 하부 메뉴 표현 방식을 나열되면서 동네마트에서부터 삼다수 수급에 대한 우려를 제기.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확한 시정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콘텐츠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힌. 고대로기자

주민주도 안덕면 발전계획

○...서귀포시 안덕면이 도내 최초 외부용역 없이 주민이 계획 단계부터 참여하는 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관심. 안덕면 종합발전계획은 지역주민들이 12개 마을별 순회 의견 수렴과 면민토론회 등을 거쳐 산업경제분과, 건설안전분과, 복지교육분과, 문화관광체육분과, 자치행정분과 등 100대 전략과제를 수립. 이상현 안덕면장은 “전민가가 아닌 주민들이 직접 계획을 수립해 학습근거가 부족할 수 있어 이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 이태윤기자

사설

대중교통·쓰레기 배출제 여전히 시원찮다

제주사회의 현주소를 비춰주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선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가 시원치 않습니다.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한지 3년이 됐지만 여전히 불편하다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치안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발표한 ‘2019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에 따르면 교통수단별 교통이용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버스 53.6%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 항공기 48.9%, 택시 42.7%, 선박 37.5% 순입니다.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개편 이후 도민의 30.4%는 ‘편리해졌다’, 30.9%는 ‘불편해졌다’고 응답했습니다. 2018년 제주지역 범죄 발생건수는 총 2만7427건으로 전년(3만1368건)에 비해 소폭 줄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적지 않았습니다. ‘밤에 집에 혼자 있을 때 두렵다’

14.9%.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27.5%로 나타났습니다. ‘폭력범죄(60.6%)’, ‘성범죄(60.0%)’는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정이 야심차게 대중교통체계를 바꿨으나 그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버스 이용 만족도가 50%대에 머물렀습니다. 지난해 대중교통 이용객은 전년보다 10.8%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대중교통에 한해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붓는 것을 감안하면 미흡한 수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문제는 치안입니다. 얼마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전국 지역 안전지수 평가에서 제주도는 최하등급을 받았습니. 그것도 5년 연속 최하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관광도시의 치안문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여서 제주도는 심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과도한 수산물 유통비용, 개선책 서둘라

제주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 유통 비용이 전체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감치와 참조기, 방어, 광어, 소라 등 5개 수산물에 대한 생산량과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생산자들의 가져가는 몫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생산에서 최종 소비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그만큼 유통 비용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가 ‘2019 수산물 유통 관측조사’ 결과 제주산 수산물의 생산과 유통까지의 각 단계별 가격 및 생산원가가 드러났습니다. 제주산 감치와 참조기의 경우 최종 소비까지 4~5단계를 거치는 구조입니다. 방어는 중도매인에게 위탁된 후 소비자 도매시장 및 가공업체를 통해 유통됩니다. 그 과정에서 유통비용이 발생하면서 정작 수산물 생산자들의 가져가는 몫은 수취율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가장 많이 보

지는 노량진 수산물시장 기준으로 감치의 경우 40.8%, 광어는 41%에 그쳤습니다. 방어는 52.5%였습니. 서울 소재 대형소매업체로 가는 참조기는 46.4%, 제주동문시장으로 향하는 소라는 47.3%에 머물렀습니다. 소비자는 원가보다 갑절 이상 가격으로 제주산 감치나 참조기를 구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주는 곶이 부리고 돈은 원지방이 받는 격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는 제주산 수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유통 단계 축소 등 개선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산지에서 소비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유통시스템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유통체계 실태가 드러난 이상 생산자들의 고된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에 진력해야 합니다.

부고 고태식(OK렌트카 대표) 아버지 제주고공 영세(향년 85세)께서 서기 2019년 12월 29일 10시 52분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12월 31일(화) ▶발인일: 2020년 1월 1일(수) 오전 7시 ▶발인장소: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2층 3분향실 ▶장 차: 양지공원 부인 오순희 아들 고태식 며느리 김애숙 태경 강용숙 태욱 김영미 태근 허은영 장 손 고서원 ※연락처: 고태식 010-3699-2900 고태경 010-9661-6356 고태욱 010-2693-9601 고태근 010-4436-8427 김애숙 010-2689-3553 강용숙 010-6799-6356 김영미 010-2579-5909 허은영 010-3696-7319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金海金氏 秋月(향년 101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12월 30일 아들 許忠濠 며느리 姜明玉 英興 金貞仁 英珍 任宣姬 딸 許英愛 사위 金台壘 英仙 金銀方 明仙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제주고씨 인생(향년 94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12월 30일 아들 김원택 며느리 이명자 문택 오정숙 문선 강춘자 김수자 사위 이영준 미자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동래정씨 태근(향년 84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12월 30일 남편 신유영 아들 신장진 며느리 임재연 상우 이현주 상훈 정인생 상범 이정아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이경애(향년 80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12월 30일 남편 김중식 아들 김희철 며느리 임혜경 딸 김수정 수현 사위 윤태규 최민희 류승렬 수경

채권자이의제출공고 본 회사는 2019년 12월 27일 임시조합원총회에서 동여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8조 1항 4호 및 같은법 같은조 5항에 의하여 본 회사 조직의 형태를 영여조합법안에서 같은법 제19조에 의한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로 변경하기로 결의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2019년 12월 30일 - 2020년 01월 29일) 이내에 본 회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하여 주시길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이의가 없으면 조직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을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형제수산 영여조합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우도해안길 218 대표이사 김태균

제주지방법원 판결공시 제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8고합2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차사) 피 고 인 고성주 위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차사)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12. 27. 판사 정봉기

제주지방법원 판결공시 제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8고합2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차사) 피 고 인 정남진 위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차사)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12. 27. 판사 정봉기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